

예산 4000억원 시대 활짝

임실군 내년도 본예산 3674억원 편성 연말 결산예산 감안시 4300억원 예상

임실군의 올 해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내년까지 2년 연속 4,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실군은 군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올해 결산예산을 4,025억원으로 확정,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규모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 증가한 3,6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13% 증가한 343억원 규모이다.

군은 또한 2018도 본예산도 총 3,67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3,302억원)보다 11.27% 증가한 수치로, 내년 말 결산예산을 감안하면 총 재정규모는 4,200~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군 예산은 2005년에 처음 2,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민선 6기 출범 직후인 2014년 2,880억원(본예

산)보다 무려 27.2%가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세부예산 편성액을 보면 농촌활력화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과 고령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염두에 둔 군민 밀착형 예산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농업해양수산분야에서는 올해보다 72억원이 늘어난 829억원이 편성, 고령 영세농 영농경쟁비 지원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등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자금 조성 10억원,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 5억4천만원, 임실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6억5천만원, 조사료 수확제비 지원사업 10억원, 임실치즈 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14억원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713억원을 편성,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며, 보건 의료 등 취약분야에도 적극 지원해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화 및 관광분야의 경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52억원, 대표관광지 조성 12억원, 임실공공도서관 건립 15억원 등 214억원을 편성해 300만 임실관광 시대를 열어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심 민 군수는 "군 살림살이가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전직원이 힘을 모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기대되는 획기적인 일로, 내년도도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새로운 변화 살 고싶은 임실'을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의 새로운 물결 '팜파티' 눈길

순창군, 6차 산업형 체험관광 연 2000여명 관광객 유치

순창군이 팜파티(Farm Party) 등 6차 산업형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 파워 블로거 등을 초대하는 팜투어와 팜파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0여명의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팜투어는 올해 13회 434명, 팜파티를 통한 방문은 4개 농장 150명, 블루베리, 오미자 축제 등 농촌체험프로그램에 1,480여명 등이다.

이들 관광프로그램은 농작물 수확과 농장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순창만의 독특한 환경을 이용한 6차 산업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특히 팜파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차후 프로그램 문이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변의 전언이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촌체험상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마케팅 모델이다.

눈길을 끌었던 팜파티는 지난 9일



지난 9일 발효소스토굴에서 '농촌의 새로운 물결, 농업 6차 산업을 향한 순창농부들의 신나는 팜파티'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효소스토굴에서 개최된 '농촌의 새로운 물결, 농업 6차 산업을 향한 순창농부들의 신나는 팜파티'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가 6명의 농부들과 함께 주최했으며 강천산 트레킹을 시작으로 순창 맛집 투어와 농촌 체험프로그램체험 및 음악회 공연 등 순창의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만족도가 높았다.

또 6명의 농부들이 직접 초대한 80여명의 VIP 고객들과 팜파티 홍보를

위한 블로거 기자단도 함께 참석해 팜파티의 의미를 더했다.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팜파티가 아직은 농부나 관광객들에게 조금 낯선 느낌도 들지만, 이미 유럽의 선진국은 팜파티가 일상화 되어 있다"며 "우리 농촌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인 만큼 앞으로도 농업의 6차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험농장 및 교육농장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오들작은도서관을 찾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독서를 하고 있다.

남원시 오들작은도서관 전북도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남원시 오들작은도서관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20일 전북도청에서 상장 및 포상금 100만원과 함께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을 수여 받았다.

이번 평가는 작은도서관 운영환경 진단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작은도서관 평가는 중앙과 지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내 129개소를 대상으로 경영, 지역협력 및 홍보, 인적자원, 장서 및 운영환경,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정성평가 등 6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오들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의 자료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자료 대출 관리 및 이용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책놀이, 북아트, 나만의 꿈 책만들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진흥원 생문화공동체 사업 공모,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힘써 왔다. 이외에도 주민 참여 재능기부 활성화 및 시·도 주관 다양한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 됐다.

남원시에서는 이번 운영평가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문화도시 남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 위촉

남원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기 문화도시 사업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15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했다.

제2기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권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시민 리더 등 민간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초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제2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과정을 통해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전북투어패스평가 3위

순창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17 전북투어패스' 시군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투어패스 홍보, 판매, 가맹점 발굴 및 관리 등 운영평가 결과다.

특히 순창군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뿐만 아니라 전북투어패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유이용시설 3개소, 특별한 인가맹점 51개소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좋은 영화관에 판매소를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관욱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관광상품개발 및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복지법인 섬김복지재단과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맺어

임실군은 사회복지법인 섬김복지재단(대표 김경순)과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교육, 다문화 글로벌 마을화사업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진정방문지원 등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일 열린 협약식은 심민 군수, 김경순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단체와 연계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순창군은 고창 육용 오리농가와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AI 철통방어에 나섰다.

군은 AI 발생으로 위기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운영돼 온 방역대책본부를 최근 2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해 비상대비 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황숙주 군수를 본부장으로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내 8개반 상황총괄반, 시설응급복구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재난수습홍보반, 의료·방역반, 물자관리 및 지원지원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자원봉사관리반,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협업부서 등을 구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AI 정정 지역사수를 위한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